

- 주요 뉴스: 미국 12월 방산업 고용 호조 불구,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인플레이 우려 완화
 - 뉴욕 연은,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글로벌 공급망을 압박
 - ECB 정책위원, 기준금리가 곧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
 - 영국 작년 4분기 주택가격, 13년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국제금융시장: 미국 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긴축 우려 완화로 위험자산 선호 증대
주가 하락[+2.3%], 달러화 약세[-1.1%], 금리 하락[-1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경기가 연착륙할 것이란 기대감 등으로 반등
유로 Stoxx600지수는 유로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반영해 1.2%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12월 임금 상승률 둔화 영향으로 약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2%, 1.0%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감에 하락
독일은 ECB 기준금리가 곧 정점에 도달할 것이란 기대감 등으로 11bp 하락
- ※ 원/달러 1M NDF환율(1252.9원, -14.7원) 1.2% 하락, 한국 CDS 하락

주요지표					주요지표				
		1/6일	1/5일	전일대비			1/6일	1/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95.1	3,808.1	2.28%	국채금리 10y	미국	3.56%	3.72%	-16bp
	유럽	444.42	439.33	1.16%		독일	2.21%	2.32%	-11bp
	중국	3,157.6	3,155.2	0.08%		영국	3.47%	3.55%	-8bp
	일본	25,974	25,821	0.59%	CDS 5y	한국	50bp	52bp	-2bp
	한국	2,290.0	2,264.7	1.12%		중국	63bp	66bp	-3bp
환율	달러지수	103.91	105.15	-1.08%	위험지표	EMBI+	-	441	-
	유로화	1.0644	1.0520	1.16%		VIX	21.13	22.46	-5.92%
	엔화	132.08	133.40	1.00%		WTI유	73.71	73.67	0.05%
	위안화	6.8280	6.8804	0.76%	원자재	구리	392.4	382.1	2.68%
	원화	1,268.6	1,269.4	0.06%		금	1,865.7	1,832.9	1.7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2월 비농업 고용 호조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인플레이 우려 완화

- 미국 12월 비농업 일자리는 22.3만개 증가(예상치 20.3만개) 했으며 실업률도 3.5%로 전월(3.7%) 대비 하락. 시간당 평균임금은 0.3% 상승해 예상치 0.4%를 하회
- 시장에서는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1년반래 최저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긴축기조가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 Vengeance Capital은 임금 상승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주기가 거의 끝나갈 것이라고 분석
- 미 백악관의 Boushey 경제자문위원은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 최저치까지 하락하는 등 주요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연착륙 기대감이 커졌다고 설명
- 한편, 일부 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향후 임금 인상 기조가 지속될 전망. ING의 James Knightley는 기업들이 수익 둔화로 비용 감축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올해 중반부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
- 캔자스 연은의 조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향할 때까지 기준금리가 5%를 상회하면서 고금리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발언. 미네아폴리스 연은의 카시카리 총재도 금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5.4%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유로존 12월 물가상승률(yoy), 9.2% 상승해 2개월 연속 둔화

- 유로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에너지 가격 상승세 둔화 영향으로 예상치(9.5%)를 하회. 그러나 근원 CPI 상승률은 5.2%로 전월(5.0%) 대비 상승하면서 경제 전반의 물가 흐름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
- 유로존 인플레이션 압력이 소폭 둔화했으나 시장에서는 ECB의 2월 50bp 금리인상 전망을 유지. Capital Economics의 Franziska Palmas는 물가상승률이 추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생산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ECB가 당분간 매파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뉴욕 연은,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글로벌 공급망을 압박

- 뉴욕 연은은 최근 중국이 빠르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따라 중국발 해외 상품 운송 능력이 둔화되고 아시아 및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도 심화되었다고 분석

■ 캐나다 실업률 하락, 금리인상 가능성 확대

- 12월 캐나다 일자리 수는 10.4만개 증가해 예상치(5,000개)를 2배 상회. 실업률도 5.0%로 전월(5.1%) 대비 둔화. CIBC Capital Markets는 민간부문 고용 안정 영향을 1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

■ ECB 정책위원, 기준금리가 곧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

- ECB의 마리오 센테노 정책위원은 새로운 경기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겠지만, 곧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 또한 독일의 11월 공장주문 지수가 전월비 5.3% 둔화하는 등 경기둔화 압력이 커졌다고 언급

■ 영국 작년 4분기 주택가격, 13년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영국 부동산 모기지 업체 Halifax는 주택가격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작년 4분기 2.5% 하락했다고 분석. 이는 가계 생활비 증가와 경제 악화 영향에 따른 것으로, 금년 주택가격이 8%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

■ 미국, 우크라이나 등에 37.5억달러 규모 군사지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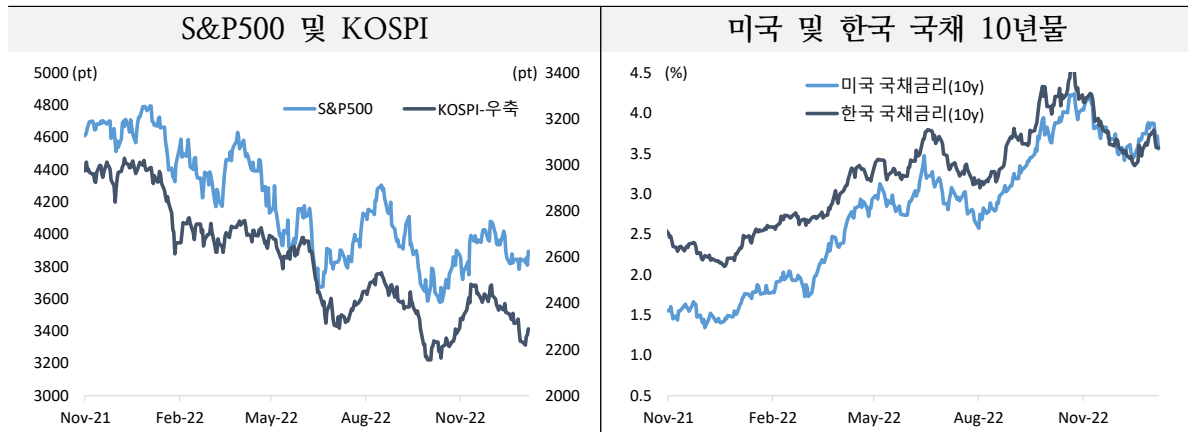
-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러시아 전쟁 피해 국가들에 37.5억달러 이상의 군사무기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지원 목록은 브래들리 장갑차, 지대공 미사일, 자주포 등과 함께 군사자금 2.25억달러도 포함. 이에 우크라이나는 몇 주일 내로 추가 전술 훈련을 시작할 방침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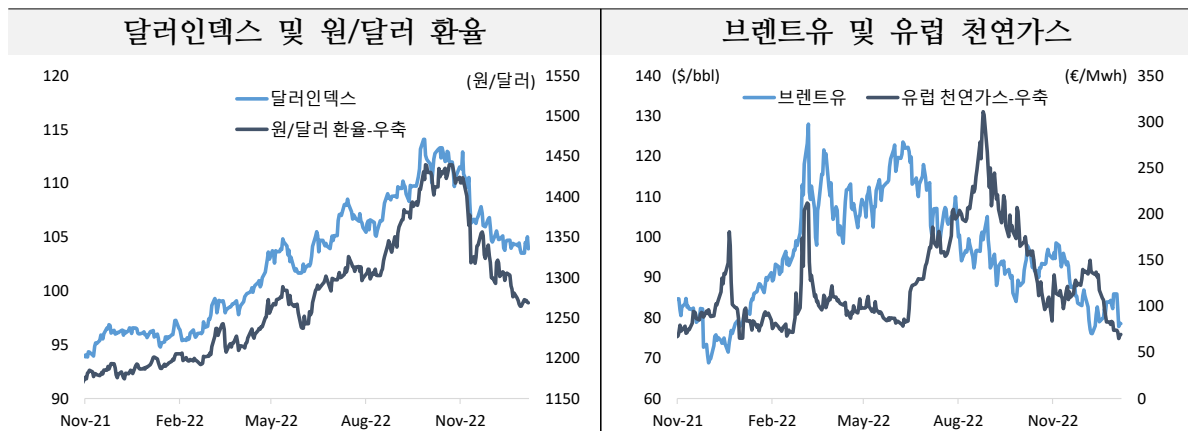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6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2월 ISM 서비스 PMI: 49.6, 11월(56.5) 예상치(55.0)
- 독일 11월 공장주문(전월대비): -5.3%, 10월(0.6%), 예상치(-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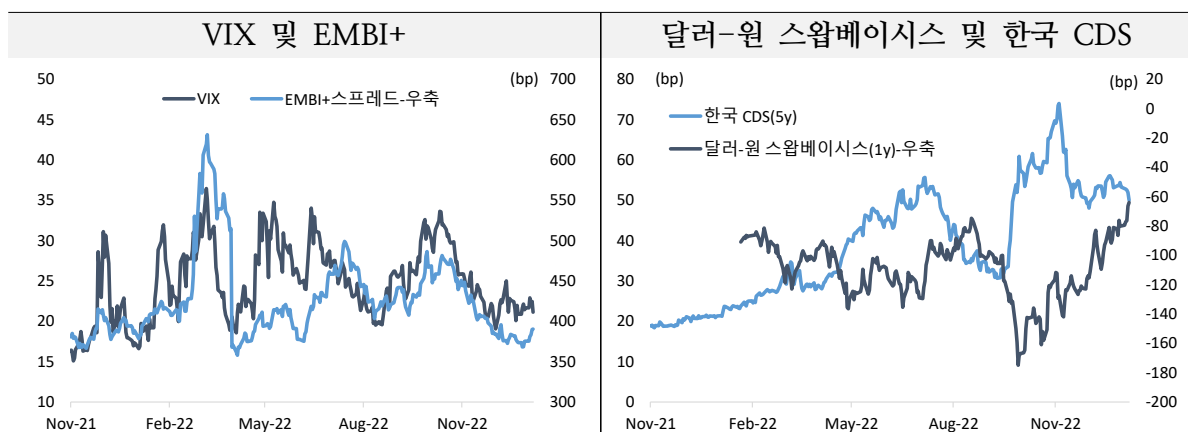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31, E-mail jgbaek@kcif.or.kr